

보살의 길

2014년 하반기 제 57호



2014년 제 8회 자원봉사자·후원자 송년회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양로원

일본연수를 다녀와서...



박혜정 사무국장

일본연수를 가게 되었다고 지역협의체 간사님의 연락을 받고 기쁨보다 걱정이 되었다. 연일 뉴스에서는 한국을 비하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금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단체로 가는 것이고 여행사의 대표님과 가이드의 인솔로 함께 움직이니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 가까운 나라지만 일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고,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대부분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가 전부였다. 드디어 해외연수 사전모임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출국의 준비를 하게 되었다. 조 모임에서 일본을 방문해 본 적이 있는 분들에게 일본의 대하여 알려 달라고 하면서 음식문화에 대해 물어보니 일본은 한국과 거의 음식 비슷하니 준비할 것이 없다고 하여 간단히 의복만 챙겨 가게 되었다.

일본에 도착한 후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 먹음직스런 우동과 어묵이 나왔다. 편하게 잘 먹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우동이 생각보다 짜서 더운 물을 더 넣어 먹어야 했고, 전통 어묵은 어떤 것은 짜서 먹기 어렵고, 어떤 것은 달아서 먹기 힘들었다. 편식을 하지 않는 식성으로 먹는 것에 대한 것은 걱정을 하지 않고 왔는데 처음부터 복병을 만난 것이다. 밥 외에는 먹는 것이 힘들어 과일만 먹어야지 하면서 사과를 먹으려 했으나 갈변을 막으려 소금물에 담근 것인지 사과를 한입 깨문 순간 사과도 짜서 먹지 못하였다. 외국에 나가 그 나라의 음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여행기간 내내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제를 먹어야만 했다.

공식방문은 뱃부의 영양원인 잇도엔(일동원), 아소지역진흥디자인센터(아소마을만들기센터), 구마모토시청을 방문하였다. 각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적극적인 질문 공세로 인해 정해진 시간이 부족해 가이드가 시간상 질문을 그만 받겠다고 할 정도로 연수에 참여한 분들이 열정적이었다.

개인적으로 일본어를 전혀 모르고, 화폐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사전지식이 전혀 없이 가게 되어 바보가 된 느낌을 받았다. 슈퍼에서 계산을 할 때 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돈을 전부 보여주며 점원이 가지고 갈 수 있게 동전을 손바닥에 가득 꺼내 놓는 상황이 되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지에 황당하기 그지없었고 언어를 모르면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 있겠다고 느끼게 되었다. 텔레비전에서 한국에서 이주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주민들이 한국말을 알아 듣지 못한다고 또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바보 취급과 욕설을 하며 확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을 볼 때 무감각했으나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보니 우리나라에 결혼이나 근로 이주를 온 사람들이 처해있는 고통이 이해가 되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낯선 이국땅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사막에 혼자 남겨진 느낌을 가졌을 것이고, 그 막막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일본연수로 인해 내가 이방인이 된 경험을 하게 되니 그들을 어려움을 조금 더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인연

조규용
국제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2005년 4월 9일!

자원봉사자로 혜명양로원을 처음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인연을 맺은 날입니다. 그 인연이 사회복지사자격에 관심을 하였고, 2014년 9월 11일부터 현장실습기회를 제공하여 120시간의 또 다른 인연의 소중한 계단을 해준 장소가 혜명입니다. 자원봉사자로 혜명과 함께한 지난 10년 동안 중에는 이승에서의 고단한 삶을 마감하시고 영면하시는 어르신들로 해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지금도 건강을 유지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보람을 갖기도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40여년을 전문직업인으로 생활하였으니 나름은 건강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무한 경쟁사회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주변을 돌볼 틈도 없이 앞으로 전진만 할 줄 알았던 저에게 혜명의 풍경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모든 종사자들도 노동의 대가를 받는 급여생활자이지만 어르신들을 대하는 모습이 제가 알고 있는 월급쟁이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공정경쟁이 미덕으로 회자되는 심각한 불공정사회에서, 본인들의 안위와 편안함보다는 어르신들의 복지와 안녕을 우선시하는 혜명의 직원들! 그리고 소소한 봉사에도 감사해하시는 어르신들과 함께한 시간이 저를 변화하게 만들었습니다.

혜명과 처음 인연을 맺을 때도 봉사실적 120시간이 필요한 사심을 갖고 시작한 자원봉사였지만, 해를 넘기면서 어르신들과의 인연에 묻혀 이제는 다른 약속을 조정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은 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느낌의 미학을 알게 되어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귀가 어두워서 대화가 불가능한 어르신들이 마주앉아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서로 공감하는 대화를 목격하면서 저는 배려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침술봉사를 하다보면 병중에 관계없이 옆에 있는 어르신보다 침을 한 대라도 더 놓아드려야 웃으시는 치기를 간직한 어르신들도 계시지요, 참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014년! 주경야독으로 어렵게 시작한 사회복지 실습에서 “실습기간에는 땀 흘릴 각오를 하라”며 자원봉사자와 다른 실습생의 자세를 주문하셨던 사회복지사선생님과 저를 한방침술자원봉사자로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토요일이 아닌 평일의 양로원방문이 혼란스러우신지 이유를 자꾸 묻습니다. 애정이 담긴 관심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생소한 분야에 대한 적응이 늦어 지청구를 듣기도 했지만, 사회복지실습지도자인 김정희선생님과 혜명의 직원들 그리고 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까지 제게는 모두가 훌륭한 스승님이셨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우리사회에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멀지 않은 후일의 제 모습이라 생각하고 복 짓는 마음으로 노인복지 전문가가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자원봉사와 사회복지의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봉사할 생각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해주신 사회복지법인 혜명양로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스리랑카 연수를 다녀오며!



채명석 생활지도원 팀장

지난 해 10월31~11월7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해명복지원 법인산하 스리랑카복지센터 방문 및 스리랑카 불교 문화유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스리랑카 사마디 복지센터는 2004년 발생한 쓰나미로 집과 가족을 잃은 아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2008년 완공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보육원입니다. 사미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스리랑카의 열악한 복지환경을 접할 수 있었고,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의 모습속에 잠시나마 동심으로 돌아가는 소중한 경험도 가졌습니다. 이후 불교문화유적지 탐방을 위해 담불라, 시기리아, 캘러니아사원, 불치사 등을 탐방하였는데, 특히 알루비하리 사찰에서는 야자잎으로 만든 종이에 불법을 새기는 패엽경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불교문화탐방은 현장에서 자비복지를 실천하는 직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불교 복지를 이끌어 갈 해명복지원 산하 직원들의 상호소통과 유대의 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지 않은 6박8일의 일정을 허락해준 해명양로원과 직원들의 배려에 감사하며 연수를 통하여 더욱 발전하는 해명양로원의 일원으로서의 자세를 보일 것을 다시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일본복지



김미자 생활지도원

일본의 시설들은 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개호 복지 초기에는 일본도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클라이언트 분들이 모든 걸 다 해주길 바라고 불만도 많이 제기하여 갈등도 많았으나 꾸준한 대화와 설득으로 지금은 잔존능력을 최대한 살려서 활용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케어를 한다고 한다. 중증 환자라도(그분을 위한 특별한 방법)전 케어를 하기 보다는 최소한 잔존능력을 파악해 계획성 있게 접근을 한다고 한다.

현재의 일본 복지의 흐름은 개인의 사생활과 개성이 아주 중요시 되고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 받아야 된다고 한다. 신체를 구속하는 행위나 비슷한 행위 등 절대로 허용이 안되며 원인이 뭔지 끝까지 문제를 파악해서 대처해야 되고 예외 상황이 발생 하더라도 절차상 너무 까다로워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시설안과 밖 생활실 어디서든 흡연이 허용되고 있었다. 존중 받아야 될 개성이라고 한다. 생활실 출입문도 커튼으로 많이 설치해 사용 했으나 1인실을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이며 다시 문, 자바라로 설치되고 있다 한다. 선진시설물, 근무자들의 자긍심 또한 많이 부러웠다.

급속이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해 종사자들의 질적인 처우개선 및 인식개선, 사회적 복지시스템이 뒷받침 되어야 선진복지로 향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회복지인으로써 우리의 자긍심 또한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될 숙제인 것 같다.

혜명한마당



| 독서심리치료 |

11월~12월 금천구의 가산도서관에서 독서심리치료를 7회기로 진행하였다. 5명이 어르신들이 참석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소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 건강관리교육 |

9월25일 보건소 보건교육 담당 영양사님이 방문하여 고혈압 교실이라는 주제로 건강관리교육을 진행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하반기 나들이 |

10월28일 파주가야랜드와 벽초치문화수목원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온천도 하고 가을하늘과 국화꽃도 보고 또 고구마 캐기를 하며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 웰다잉 교육 |

10월에 불교여성개발원 주최로 4회기 웰다잉교육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고 현재 내 생활에 만족하며 주변사람들을 돌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음악치료 |

10월~12월 주 1회 10회기 음악치료를 하였습니다. 노래와 악기연주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잠재되어 있는 내면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인권교육 |

11월18일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이 인권교육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및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으로 사소한 말과 행동들도 조심하며 어르신들을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추석제사 |

추석을 맞이하여 입소어르신들과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하여 조상님들과 돌아가신 양로원어르신들에게 차례를 지냈습니다.



| 물리치료 |

균형감각 향상과 체중관리를 위해 1:1 운동치료를 받고 계신 사진입니다. 하반기에 20회기를 계획하여 운동을 하였습니다.



| 국민체조 |

양로원에서는 매일 아침 9시 어르신들과 전 직원들이 함께 하는 국민체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 직원들 위주로 진행하던 것이 이제는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호응속에서 하나의 양로원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혜명동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32명/ 여:32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금하로 29길 36(시흥동)

직원현황

- ▶ 총 16명
- 원장 1명/ 사무국장 1명/ 시설과장 1명
-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 물리치료사 1명/ 생활지도원 5명
- 사무원 1명/ 위생원 1명/ 조리원 2명

현재 입소인원 (12월 31일 기준)

- ▶ 총 57명 (할아버지 : 28명 할머니 : 29명)

입소대상 (무료주거복지시설)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7.15 롯데빅마켓 금천점 행복드림 고객봉사단에서 방문하여 점심식사대접, 노래공연 및 노력봉사, 후원품 전달을 하셨습니다. 참여하신 롯데빅마켓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2.26 KSA행복나눔회에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침대 2개와 옷장 8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2014년 하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역(7월~12월)

수입		지출	
수입내역	금액	지출내역	금액
전년도이월금	19,476,335	사무운영비	4,210,610
지정후원금	7,746,000	시설비	7,175,040
비지정후원금	17,178,639	사업운영비	3,241,689
잡수입	11,318	사업비	1,149,240
		이월금	28,635,713
합계	44,412,292	합계	44,412,292

자원봉사자

2014년 7월 1일 ~ 12월 31일

대림미용실(문덕녀, 최혜영)/ 치과진료(임호순, 석일현, 나영균, 김종환, 우원식, 이성봉, 임순빈)/ 한방침술(조규용, 김용기)/ 건강체조(오정은, 유인유, 이유미)/ 백련서울림회/ 민들레모임(이정순, 박계남)/ 알송달송구연동화(이강택, 임효정, 한미옥, 진명자, 김복희, 이이숙, 노경숙, 우쿠렐라(이승희, 강성심, 박진선, 장원준, 이희숙, 정순정)/ 자비나눔예술봉사단(신숙례, 이득남, 이정조, 이정옥, 김명숙, 광명옥, 지홍자)/ 메아리예술공연단(손인평, 봉순이, 문윤희, 박상권, 김귀남)/ 중부운수삼운회(성낙권, 조용대, 백영일, 오명열, 윤병희, 우명희, 정정식, 손선이, 류재원, 고덕호, 한류인)/ 남부교도소 재소자/ 남부교도소 교정위원(이준화, 송기섭, 이성민, 김용근, 박응주, 광윤희, 하동순, 최명재)/ 서비스에이스(정혁, 선진윤, 이찬민, 김경동, 유근상, 이수열, 문혜진, 김주영, 강연화, 장성수, 김현실, 정수진, 박규수, 박이희, 윤지우, 김명아)/ 이침테라피(마경화, 이희경, 원채영)/ 문백초 6(이상호선생님)/ 안양교도소 재소자/ 독서치료(조수미)/ 삼화양행/ 대림성모병원(김상임, 이선숙, 김덕희, 김미경, 배영미)/ 오류초등학교/ 용마교/ 김정상/ 레크레이션(유화순, 신서영, 이정남, 손순화, 고은림)/ 실버제조(이경숙)/ 유맥회/ 시흥동주민 백낙민 외 7명/ 슬리스츠/ 중앙국악예술협회/홍사랑/ 웃음치료(서경숙, 김영미, 김정희, 문종철, 민태규)/ 청담중학교/ 가산도서관

물품 후원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이윤분, 김정상, 금천푸드뱅크, 벽산2단지입주자대표회, 박노원, 최석봉, 용마교(용산고동창회), 신인중, 서서울생활과학고, VIC마켓, 롯데마트사업본부, 레크레이션봉사팀, 도선사(포교원), 대림성모병원, 문백초등학교6학년(이상용), 보명사, 금천구청, 해오름종합식품, 김은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백련사, 자비나눔예술봉사팀, 이침테라피봉사팀, 박재근, 인천보살님, 조동춘, 남준모, 한병철, 윤정빈, 서울남부교도소, 금천구의회, 셋벌어린이집, 에코푸드, 정성요양병원, 사랑의실천운동본부, 삼화양행, 혜명보육원, 양보금, 청담종합사회복지관, 김병수, 독지가, 은정엄매(정경숙), 한미옥, 알송달송공연봉사팀, 입소자가족, 안양교도소, 김성욱, 서울마님죽집,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지법인혜명복지원, 아모레퍼시픽, 신서영, 금천사랑봉사대, 시흥2동자원봉사캠프, 이종량, 임명선, 중앙푸드뱅크, 이준기, 이지준, 평택청담중학교, 김세원, 유맥회, KSA행복나눔회, 민들레모임봉사팀, 박광열, 금천구생활체육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서대문구협의회

금품 후원자

윤재순180,000	박성수180,000	최형기60,000	구봉순30,000	이정호20,000	김연숙120,000
강윤호100,000	이복자20,000	이어상300,000	김태우50,000	양보금60,000	보명사300,000
백련사1,000,000	김선금200,000	유원조10,000	국승우100,000	박세진50,000	이순자120,000
이명희60,000	이종림60,000	유복진30,000	이명진30,000	황준순60,000	황재욱60,000
조방희30,000	이마트4,579	한미옥30,000	이의인180,000	김민수50,000	이종민60,000
김애순60,000	홍순의60,000	박분여60,000	하미숙60,000	권영순10,000	송은지30,000
송준우30,000	추영상60,000	김홍수60,000	송진희60,000	이해진60,000	윤시균3,000
양서연60,000	박민호70,000	오선미50,000	한영화60,000	문권화60,000	김택규560,000
채명석40,000	김은숙200,000	이현정40,000	채유진40,000	채수진40,000	박찬일120,000
조규용40,000	이창열60,000	박혜정300,000	이성현60,000	박혜순60,000	박순옥30,000
강복순20,000	안효주3,200,000	바자회2,829,000	우리은행시흥중앙지점100,000		
(주)한국거래소1,200,000	청담어린이집100,000	서울복지공동모금회2,800,000			
서울남부교도소200,000	에코푸드3,637,740	국민은행공항시장역지점1,000,000			
현대오일뱅크1%나눔재단1,617,000					
*가족후원-구충수600,000 임옥수(부인)600,000 박두영(사위)700,000 구수미(딸)600,000					

